

대중역사서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전공 사학자들은 집필 외면... 오류 많고 사관이 없는 책들은 우려돼

이즈음 서점에 나가보면 수많은 대중역사서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일반 독자들의 입맛에 맞게 쉽게 풀이된 책들이다. 하지만 이 대중역사서를 둘러싸고 학계와 출판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학자들의 비난에 '학계가 못한 일을 한다'는 출판계의 주장이 맞선다.

95만의 독자층 이미 형성돼

대중역사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자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독자층이 형성된 것은 지난 80년대. 이 시기, 독자층은 민중사관을 선호하는 진보적 대중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역사해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관을 원했다. 따라서 대중역사서는 상대적으로 학계에서 소외된 필자가 쓴 통사가 많았다. 통사는 일관되게 민중사관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0년대 접어들어 민중사관이라는 관점은 사라졌지만, '학계에서 소외된 필자·이야기체의 통사'라는 특징은 그대로 옮겨왔다. 이는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대중역사서의 목록에서도 확인된다. 올 한 해 베스트셀러가 된 대중역사서로는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고려왕조실록》·《...삼국왕조실록》(들녘), 《한국사이야기》(한길사), 《이야기 한국사》(청아출판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이야기체 통사라는 특징이 있다.

90년대에는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 쉽다는 특징 때문에 통사를 중심으로 대중역사서가 발간됐다. 《역사신문》(사계절)을 편 김성환씨는 "대중들은 이야기체의 통사를 원하지만, 기존의 역사서들은 워낙 딱딱하다"고 말한다. 《진화이라 불려다오》(푸른숲)를 쓴 이도학씨 역시 이 점에 동의하며 "대중역사서의 진행 방향은 통사에서 분류사로 나아가다"고 말했다. 즉 현재 주 독자층의 수준이 입문 단계기 때문에 통사 중심의 역사서가 많다는 얘기다.

대중역사서를 둘러싼 논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전공자들은 통사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기동 교수(동국대 국사학과)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우리 학계 풍토에서는 통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단언한다. 박광용 교수

대중역사서를 둘러싸고 학계와

출판계에서 '소설이다', '학계가 못한

일을 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대중역사서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일면서 '학계에서 소외된

필자, 이야기체의 통사'라는

대중역사서의 특징도 '전공자·

특정 분야'로 바뀌어간다. 학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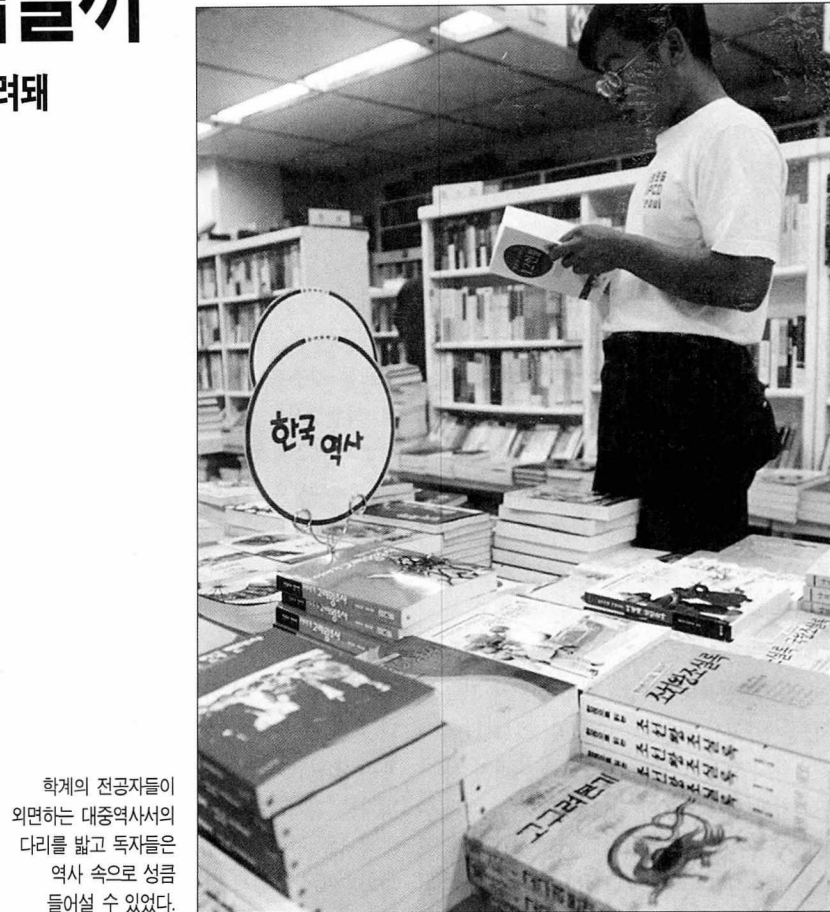
자신의 연구성과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가톨릭대학 국사학과) 역시 전공자들은 통사를 쓰기 힘들다며 동의한다. "전공자의 경우,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아 통사적 시각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30~40편의 논문을 발표한 뒤에야 개설서 저술을 용납하는 학계 풍토 때문에 원로를 제외하곤 일반인을 위한 통사를 내기 어렵다"는 것. 바로 이 점이 통사 위주로 형성된 대중역사서에 비전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

통사 분야의 대중역사서 시장에 뛰어든 필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등을 펴낸 박영규씨는 "나도 한번쯤 읽고 싶은 유의 책이었지만, (학계에서는) 누구도 쓰지 않아 내가 썼다"며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 자료를 대중적 필체로 썼지만, 학계의 연구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역사평론가 김성환씨 역시 그간 학계가 대중을 위한 역사서에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경직된 학계의 풍토가 비전공자의 집필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독자층은 있지만, 책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이 점은 학계도 인정한다. 사학자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전공자들이 대신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그게 바로 통사에서 만나는 것. 하지만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비전공자가 쓰는 통사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박광용 교수는 "비전공자의 경우, 남의 역사의식을 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없고 오류가 많



학계의 전공자들이 외면하는 대중역사서의 다리를 밟고 독자층은 역사 속으로 성큼 들어설 수 있었다.

다"고 말한다. 이기동 교수 역시 "픽션과 역사가 혼합된 대중역사물이 일반 대중들을 오도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점에 대해 박영규씨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가장 큰 문제는 (학자들이) 숨어서 읽거나 아예 읽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김성환씨 역시 "학계의 연구성과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대중역사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차피 대중역사서라는 것이 상업주의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면 학계의 연구성과에 충실하냐 아니냐를 갖다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학계가 분류사 이상의 부분 맡아야

이런 전공자, 비전공자 논쟁은 최근 대중역사서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일면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사도세자의 고백》·《영조와 정조의 나라》(푸른역사),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효형출판) 등 통사가 아닌 특정 분야의 역사서가 보인다. 이는 대중역사서가 통사 위주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청년사)·《조선시대 생활사》(역사비평) 등 주제 위주의 분류사를 거쳐 특정한 시기를 통해 전반적인 시대상을 살피는 쪽으로 좁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의 역사학적 기호가 일반적인 역사 흐름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까지 격상됐고 그러면서 '학계에서 소외된 필자·이야기체의 통사'라는 대중역사서의 특징도 '전공자·특정 분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비전공자가 집필한 책도 있지만, 대부분 자료와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공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가령 《정조의...》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각종 역사적 자료를 취합하여 전공자의 시각에서 정조의 화성행차 8일간의 행적을 풀어냈다. 이는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간다고 해도 시대 전체를 다루는 일은 드물다. 분류사까지는 어느 정도 비전공자가 접근할 여지가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이 이후의 대중역사서는 학계의 과제로 남는다. 현재까지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68쇄 95만부를 넘어섰으며 《역사신문》도 20쇄를 넘어섰다. 어떤 장단점이 있건간에 대중역사서의 독자층은 분명 존재하며 그들의 역사 인식은 진화한다. 이제 학계도 자신의 연구성과를 풀어쓰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박영규씨는 "내 책은 교량역할을 한다. 나는 학자가 아니다. 연구하긴 하지만, 더 들어가려면 학자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미 95만의 독자들이 그 다리를 밟고 역사학 속으로 들어갔다. 학계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대중역사서의 미래는 달려 있다. — 김연수 기자